

한국 sports fashion image에 대한 연구

* 배재대학교 의류학부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이 은 영*

목 차

- I. 서론
- II. 시각상황과 예술적 배경
 - 1) 복제의 시각
 - 2) Hyper media 시대
- III. Fashion에서의 sports trend
- IV. 한국의 sports fashion image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I. 서론

20세기 sports fashion은 기능주의의 절정인 1960년대 이후 sportive look을 주도한 이브생 로랑(그림 1), 피엘 가르맹(Cosmocorps look: 스포츠카 운전복, 비행복), 앙드레 쿠레주의 디자인으로부터 주목된다. 60년대 두드러진 특징은 옷감의 질감의 변화로 인한 특별한 시도가 있었는데 비닐, 가죽, 플라스틱, 금속 등의 소재가 이용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육체의 노출과 함께 인간 자유에의 의지가 복식에 절정으로 표현되는 계기가 되었고, 64년 Rudi Gernreick의 topless 수영복은 획기적인 신체노출의 시도였다.²⁾

2) 정재희, 20세기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중앙대석사 논문, 1991.

60년대는 대중의 존재를 적극 의식하여 귀부인이 아닌 세속의 젊음에 한 시대의 스타일을 맡긴 도발적인 패션혁명이었고, 그 혁명은 '이유없는 반항' 세대의 부상 즉 청년문화에 기반을 두고 전례없이 강력해진 새 하위문화의 부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3) 이주현, 미술로 보는 20세기, 학고재, 1999, p33.

었다. 그리고 패션은 대중커뮤니케이션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³⁾ 70년대는 건강한 생활의 1차적 요소가 되어 복잡한 사회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경제적 수준향상으로 여가를 즐기게 됨으로써 간편하고 활동적이 레저웨어를 요구하게 되었다. 보다 더 자유로운 유행의 분위기는 캐주얼한 스타일 문화와 정신의 대표적 상징이 되었다.



(그림 1) Yve st. Laurent 의 새로운 신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비치는 기능주의적 fashion

4) ibid, p31.

20세기 전반은 오프 꾸뛰르 특히 파리의 오프 꾸뛰르에 의해 유행이 좌우되었고 1960년대 이후 프레타 뽀르페는 곧 고급 기성복으로 옮겨갔다.

기성복업체들이 축적된 자본과 새롭게 향상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성복에도 브랜드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오프 꾸뛰르의 아성이 흔들리게 되었다.⁴⁾

이제 패션은 오프 꾸뛰르시대에서 프레타 뽀르페를 거쳐 sports fashion의 시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60년대 이후 발전해 온 혁명적 의상은 소재와 기능적 역할, 자연주의적, 환경친화적 시대에 인간의 신체적 건강을 구애받지 않는 개성적 유행이 주도하고 있다. 컴퓨터 시대인 오늘날은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사이버 공간 등 현실과 환상, 원본과 모사물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장 보들리야르는 '오늘의 우리사회에 실재란 없으며 우리는 실재의 환각만을 제공하는 모사물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시대에 우리는 특히 이미지로 현실을 파악하게 된다. 특히 대중의 의식은 패션이미지에서 읽을 수 있다. 막스 프리틀란더(Max Freidlander)는 "신발이 대성당 만큼이나 한 문명에 대해 잘 대변해 줄 수 있다"고 했다. 패션은 시대를 아는 기호이며 패션이미지는 이제 대중의 취미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5) 박명희, 정연자, 복식에 표현된 '투명성'에 관한 연구, 복식 43.

6) 이 정후, 양 속희, 크로스드레싱에 관한 연구, 복식 35호, 99

7) 이 정후, 안 선경, 양속희, 현대복식에 나타난 매너리즘적 경향에 대한 연구, 복식 33, 1999.

8) 이 은영, 확장문화개념에서의 90년대 유행 fashion의 경향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5권, 1997.

9) 이 은영, 현대예술과 패션의 트렌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권, 1998.

10) 이 주현, p232.

현대패션을 분석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박명희, 정연자는 투명성으로,⁵⁾ 이정후는 cross-dressing으로,⁶⁾ 또한 변형과 모호함, 비합리성으로 보았고,⁷⁾ 이은영은 확장문화개념에서 90년대 유행을 streetism, cyber punkism, haute couture romanticism으로,⁸⁾⁹⁾ 또한 90년 이후의 트렌드 이미지를 Ageless image, Genderless image, Street Image¹⁰⁾로 분석하였고, 특히 스트리트 스타일의 미적 의미를 해학, 감상, 선정성, 환상성으로 압축하였다.

본 고에서는 현대 패션의 여러유형 중 특히 스포츠 웨어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도 의의가있다고 생각되어 sports fashion, sports casual fashion sports로 불리는 sports fashion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한국의 sports fashion image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haute couture에서 prêt-à-porter로 다시 sports fashion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대 패션에 대한 문헌조사와 90년대 후반의 우리나라 스포츠 브랜드의 전개를 통해 fashion sports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의 sports fashion의 방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20세기 말에 두드러지는 casual image는 예술에서의 시각 image와 관련이 있고 특히 fashion에서는 유명 디자이너의 sports concept 표출이 두드러진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sports fashion image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시각 상황과 우리나라 sports brand 성장에 비추어 fashion sports로 불러주는 시점에 주목하였는데 프랑스의 haute couture collection의 관심은 줄고 american casual시대가 되면서 sports fashion에 대한 열광이 계속되고 있다.

2. 시각 상황과 예술적 배경

1) 복제의 시각

현재 우리는 가정용 텔레비전과 비디오로 부터 입간판이나 네온간판, 혹은 다양한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이미지에 포위되어 있다. 예술에서는 원래 반영하고자 했던 '원본'의 실재를 이미지가 대체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그것은 실재와 상상을 구분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주체가 내면과 지식적 깊이, 역사적 시간과 일관된 인간의 표현이 예술분야에서 사실상 사라져 버리고 다양한 상상력이 '시물라르크의 이데올로기(ideology of simulacrum)에 의해 삼켜졌다는 느낌이 전달된다. 20세기의 예술적 변화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벤야민의 기술적 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을 보면, 프랑스의 초현실주의 시인 발레리의 말을 인용한다.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¹¹⁾

11) 이 동승, 하이퍼 미디어 시대와 시각예술의 상황, p146, 미학·예술학 연구.

모든 예술형식에는 더 이상 예전처럼 생각되거나 취급될 수 없는 어떤 물리적 요소가 있다. 이 물리적 요소는 더이상 현대의 지식과 힘이 미치는 영향력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질, 공간, 시간과 같은 물리적 요소는 지난 20년 사이에 예전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우리는 예술의

중체 기술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혁신을 예견해야하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술적 창조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예술에 대한 우리의 개념 그 자체에 있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

벤야민은 사진의 발명이 미술의 성격을 변화시켰다고 결론 짓는다. 몇몇 비평가들과 달리 벤야민은 새로운 기술이 진보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을 유감스러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문화와 예술적 생산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였다.¹²⁾ 이제 복제는 민주화의 시각을 탄생시키는 배경이 된 것이다.

12)로 워커/ 장선영 역, 매스 미디어와 예술, 시각과 언어, p113

20세기의 모든 사람들은 미술작품의 복제물이 지닌 장점이 그 복제물들의 결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복제 기술은 '진품'과 '사이즈'의 감각을 퇴색시켰으며 <예술>과 <대중>의 관계를 변화시켰고, 대중을 위한 예술의 도식을 완성시켰다. 벤야민이 말하는 것처럼 예술이 단지 추구되던 대상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게 되었다. 그리고 일상과 예술은 그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¹³⁾ 벤야민에 의하면 오리지널이라는 개념이 위협받고 있다면 그것은 복제이미지가 오리지널에 대체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리지널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제에 의하여 오리지널은 스케일을 잃었고 소형화 추세는 액자로 발전하였으며 액자화는 그 자체에서 분리되어 단편화된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 사람들이 복제에 둘러 쌓이게 되면 그 형식이나 공간성이 아니라 시각내용이나 정보,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사실이다.¹⁴⁾ 이것은 동시에 호평을 받고 있던 많은 명작의 가치를 격감시켰고 모르고 있었던 대부분의 작품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현상을 일으켰다. 이것은 또 보편적인 미의 개념이 제한된 지역의 일과성 예술의 한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구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서양에만 있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걸친 일반적인 수준으로 다양한 미의 위상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사람들은 전세계에서 교류되고 있는 사진도판에서 알게되었던 것이다.

13) 존 버거/ 이 등준역, Way of seeing, 동문선, 1996, p291.

14) ibid, p288.

2)하이퍼 미디어 시대

19세기의 과학기술 시대에도 사진술, 광학이론, 전기, 엑스레이, 영화, 칼라사진 등이 시각예술에서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 했듯이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며 예술가 즉 미술가와 디자이너들은 그러한 새로운 매체가 가져다 주는 더욱 모험적인 예술형식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1963년 맥루한(Marshall McLuhan)이 '미디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에서 지적했듯이 전자 미디어에 의해 제공된 즉각적인 소통의 기능은 사실상 파편화 된다. 말하자면 연속성(sequence)이라는 긴장된 흐름이 몽타주(montage)라고 하는 단편의 집적으로 대체된다는 말이다.¹⁵⁾

15) 이 동승, ibid, p161.

신체표현을 예를 들면, 이러한 technology를 매개로 하여 위트컨이라는 작가는 정상과 완벽, 그리고 아름다움을 평가하고 추구하는 현실에 강한 거부감과 저항의식을 품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98-00 SS trend에 보이는 hybrid현상과 관련이 있다.¹⁶⁾ 즉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가되어 오던 기존의 상식들, 이국적 요소의 다양함들이 믹스되어 새로움으로 등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6)정미혜, '98-00' fashion trend에 나타난 Hybrid현상에 관한 고찰.

위트컨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를 매개로 해서 기존의 질서와 가치, 미적관념 등에 도하는 창작양상이 1980년대 이후 부쩍 늘었다. 이는 그 만큼 인간의 신체가 엄청난 존재상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신체의 도전이 그에 상응해 그 만큼 격렬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흐름에는 여권신장과 가부장 문화의 붕괴, 성상품화, 시각매체의 발달로 인한 이미지와 영상언어의 범람 및 물질적 풍요에 기반을 둔 감각적 생활태도의 확산, 환경위기로 인한 생명 의식의 고양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특히 육체에 대한 정신의 우위를 강조하는 서양문명의 이성중심주의가 포스트모던 시대에 전면적으로 거부되면서 몸의 인식론이 새로운 인식방법론으로 중시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¹⁷⁾

17) 이 주현, ibid, p339.

즉 하이퍼 미디어 시대에는 technology와 신체의 재발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서 자본이 성과 신체를 사물화, 상품화하고 개인이 자기 검열의 일환으로 다이어트, 성형수술 등 스스로의 신체를 통제하는 것이다.

fashion의 신체의식은 fashion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래 투명성을 찾고 기능주의에 머물며 절제하다가 새로운 신체를 발견하기 위해 건강에 관심을 두고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새로운 fashion을 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sports fashion의 활성화를 보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그림2 DKNY>



그림 2. 도나카렌의 스트레칭 의상

3. Fashion에서의 sports trend

90년대 이후 technology의 발달은 전자매체의 가속화와 가상현실을 창출해 내었다. 따라서 보들리야르가 이야기 하듯이 “우리사회에 실재란 없으며 우리는 실재의 환각만을 제공하는 모사물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 만큼 혼란스럽고, 실제로 부터 파생된 허구적인 이미지와 기호로 가득찬 세계가 오늘이라는 것이다.¹⁸⁾ 이는 복제에 의해 오리진일 개념이 대체되고, 소형화된 액자화 즉 image의 파편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90년대 중반부터 fashion trend에 보여지기 시작했던 사이버 패션은 미래주의, 노출표현, 양면성, 역전의 발상, 스포츠 감각, 테크노 감각 등이 인간적 요소가 혼합된 양상으로 발전되었다.¹⁹⁾ 97년에도 즐거움(enjoy), 편안함(comfort), 간편함(easy), 만족감(pleasure)을 통한 인간만족으로 표현되었다. sports fashion은 조형적 배경보다는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내면적 발상에서 비롯되었지만 의식의 전환은 시각상황이 예술적 맥락에서 주로 고찰하였는데²⁰⁾²¹⁾, 이효진²²⁾은 20세기말 패션디자인에 표현되는 조형적 이미지는 인간중심 이미지, 토템과 신화적 이미지, 절충적·복합적 이미지로 요약했으며, 최정화, 유영선²³⁾은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이너들에 의해 대중들에게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운 것이 또 하나의 미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름답고 숭고한 것의 이면에 위치한 그로테스크는 무한한 다양성의 형태로 새로운 창조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런 배경은 패션의 hybrid현상²⁴⁾을 예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은 즐거움과 기쁨을 부여하는 키치에서 표현되고, 일상성의 예술화, 저항과 일탈의 키치패션이 확산되게 하였다.²⁵⁾

18) 이 주현, ibid, p1993.

19) 이 은영, 이종련, 홍운택 우리나라 사이버 fashion에 대한 연구 -1994년 이후에 나타난 트렌드 중에서-, 배재대학교 자연과학논문집, 11/1, 1998.

20) 이 은영, 확장문화 개념에서의 90년대 유행패션의 경향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5/4, 1997.

21) 이 은영, 현대예술과 패션의 트렌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3, 1998.

22) 20세기말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표현주의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 40호, 1998, 9.

23) 최 정화, 유 영선,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복식 40호, 1998, 9.

24) 추) 18참고

25) 김 인숙, 김 경옥, 현대패션에 표현된 키치 연구, 복식 47호, 1999, 9.



<그림 3. 스노우 보드>

이러한 시각적 배경과 현대 대중사회의 상품을 둘러싼 미적 가상의 공간에서 대중의 취미를 통일화 시키고 비개인화시킴으로써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²⁶⁾ 인간의 감각적 지각의 형식을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는 미적 가상의 세계를 창출하고자 하는 상품미학의 전체적 효과는 취미의 광범위한 공유를 야기시키는데 있다. 상품주위에 형성되는 미적인 것의 공간은 관심적인 사물로 채워져 있

26) 엄 광현, 소비문화현상으로서의 상품미학, 미학·예술학연구회, 34호, 1994.

다. 현대 소비사회에서는 취미가 인간의 일상적 삶의 방식을 만든다. 대중사회의 인간들은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갈망으로 자신을 엮어가고 있으며 감각적인 자극에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품미학이 인간의 감성을 주도해낸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로서 기술적으로 생산된 인공적 외관에 인간이 매혹되는 과정속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워나간다. 여기에는 미적이미지의 매혹만이 존재하며 매혹은 미적이미지들로 인간의 감성을 포섭한다. 이런 조건이 패션상품의 이미지로 여겨지며 haute couture의 고급품이미지의 취향이 pret-a-porter, sports fashion의 대중취향으로 옮겨지면서 현대의 grotesque한 미적 감수성은 신체의 자유를 통한 보다 내면의 자유와 다양한 감성을 추구하며 기이한 형태의 hybrid현상도 드러나게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초기의 sports wear는 단지 기능을 만족 시키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90년대 이후 젊은층의 패션이 주도하면서 easy casual, hip-hop casual, luxury casual, jean casual, entertainment sports casual, new street casual wear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다.²⁷⁾

27) Texjournal, 1999.4.
Texjournal, 1999. 5

4. 한국의 sports fashion

한국의 fashion시장은 IMF직전 가장 뜨거웠다. 짬지가 스포츠 브랜드를 런칭한 후, active street / street sports / easy & comfortable casual 등의 명칭이 보여진다. 주로 유통위주로 붙여진 이름으로 영캐주얼/ 진캐주얼/ 유니섹스 캐주얼로 큰 대체는 sports + casual이다. 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sports란 단어가 삶의 근간을 이루고 핸드폰, 자기만의 home page 접촉시대에서 통신시대로 변화하는 communication 수단에도 스포츠가 모든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²⁸⁾ 또한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변했다. 건강미가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인식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스포츠=아름다움일 정도로 스포츠는 지금의 문화속에 깊이 침투해 있고 앞으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스포츠 웨어를 입고 스포츠카를 타고 스포츠 카페를 찾아가 스포츠트링클을 마시는 모습은 현재의 젊음을 상징하고 있으며 향후 잃어버린 젊음과 자신감에 대해 보상받고 싶어하는 어덜트 층과 미래의 이상적 자화상을 찾으려는 영층을 포섭해 갈 것이다. 나이키 인터내셔널이 스포츠의 파워는 universal language라고 피력한 것처럼 스포츠는 세계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²⁹⁾

28) Texjournal, 1999,
6, p163.

29) Texjournal, 1999,
10, p128.

우리나라는 80년대 초반 해외 스포츠 브랜드들의 진출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86아시안 게임과 88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호황기를 맞았다. 93년 이후 FILA가 패션스포츠의 선두주자로 스포츠 군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sports line이 매력있는 zone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즉 sports가 street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참고로 '99 S/S sports fashion 신규브랜드를 보면 다음과 같다.

'99 S/S Sports Casual부분 신규브랜드

브랜드	구 분	특 징
아이코	여성스포츠 캐릭터 캐주얼	감각적이고 실용적이고 스포츠캐릭터 라인 clean & modern simple, sports & feminine 23세 메인
F-40	유니섹스 sports casual	american street sensitive sports look
마루	유니섹스 캐주얼	Basic & easy, unisex casual 19-23세
후부	유니섹스 힙합캐주얼	아메리칸 스타일의 힙합 스포츠 look 10-22대 초반
CDI	스포츠 캐주얼	심플한 베이직, 활동성이 돋보이는 스포츠 캐주얼 힙합 스타일 17-19세
폴 앤 샘	아메리칸 스포츠	고품질, 합리적 가격의 스포츠 캐주얼 30대

아메리칸 라이프 스타일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는 식생활과 함께 의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 Foot wear에서 머리위의 cap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웨어의 확산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착장을 지배하게 된다. 세계 최대의 스포츠 시장인 미국의 경우 소득수준의 향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여가를 위한 레저활동 등에 대한 욕구는 액션으로 나타났고 이 액션은 400억달러라는 대형 스포츠 시장 규모를 탄생시켰다. 스포츠를 운동경기로 여기던 생각이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이 된 것이다.³⁰⁾

30) Texjournal, 1999. 7.

90년대 초에 디자이너 다나카렌은 레깅스와 램스커트의 코디를 제안했는데, 캐리어 우먼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ever wear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도시 직장 여성들에게 크게 어필되어 다나카렌은 그후 패션스포츠 웨어를 대표하는 세계적 디자이너로 평가 받게 되었다. 미래의 스포츠 시장에서 여성은 더욱 큰 파워를 나타낼것이고, 패션 스포츠로서의 럭셔리 스포츠가 미학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Technology와 일반적인 dressing 개념을 혼합하여 드러나게 되었고 특히 프라다 스포츠가 대표적이며, 소재에 차별화를 두어 테크니컬 나일론과 고어텍스, 쿨맥스, 종이 섬유 등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럭셔리 스포츠 웨어는 21세기의 고감도 패션을 주도할 것이다.³¹⁾

31) Texjournal, 1999. 5.

Fashion marketing³²⁾ 에서 80-90년대 초 까지만 해도 sports를 근간으로 신발이 중심이 되는 어슬레틱 스포츠가 주류였으나 이후 휠라의 등장은 국내 스포츠 시

32) 패션 마케팅, 1999. 4

장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스포츠 웨어가 캐주얼화되기 시작한 시발점이 되었다고 했다. 99/00의 신규브랜드의 sports casual 지향은 easy, basic, comfotable, street, active로 되어있다.

sports + jean = sports casual, sports + classic = easy casual, sports + character unisex = urban casual이라는 sports mix현상은 sports에 나타난 fusion현상으로 보여진다.

여유가 생길수록 fashion trend는 sports와 mix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rnst Bloch는 예술없는 현실이 완성되지 않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진정한 예술은 생명이 없는 기계의 산물과 황량한 신주거지역이 보여주는 바 “Technology의 차가움”에 맞선다. 그는 자신의 ‘논문 예술과 유토피아’에서 테크놀로지의 미학화-가령 Technology와 예술을 융합시키는 따뜻한 warm기계를 개발하는 것 같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순수하게 기능적인 목적으로 인류에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블로흐는 이윤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Technology가 나와야 할 것이며 “쓰레기 같은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테크놀로지, 또 이전의 예술작품을 기계적으로 대체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능적 목적에 사용되는 완전히 다른 테크놀로지가 발명되어야 할 것³³⁾”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예술의 맥락과 같이 패션의 기능성³⁴⁾에 대한 논의도 순수한 기능에 더욱 충실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스포츠 웨어의 새로운 전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9)

특히 최근에 섬유과학 기술의 진보로 인해 스트레치 직물이 다양해지고 편안함과 기능적으로 이상적 개념을 충족시켜³⁵⁾ 스포츠의 미적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의 현대적 개념 즉 comfort, function, flexibility, uniformity, healthness, modern purity, modern femininity, simplicity and minimalism을 표현하는데 스트레치의 시각적 이미지는 자체가 easy & free한 느낌과 보편적(universal)이며, 미래적(futuristic)이라³⁶⁾ 하였다. 이는 sports fashion의 이상이 될 것이며 미래 패션의 방향을 예견하고 있다. 한국 sports fashion의 image는 Bloch의 인간을 위한 Technology 즉 기능적이며 인간적인 시도로 발전해 갈 것이다.

33) Ernst Bloch, "Something's missing", The Utopian Function of Art and Literature, Jack Zipes Frank Mecklenberg 역, Cambridge: MIT press, 1988/ 이영철, 21세기 문화 미리보기, 시각과 언어, p59, 재인용

34) “에어컨배관용 tape를 미국의 10대들이 찢어진 청바지나 운동화 주변에 붙이며 덕트테이프 패션을 만들고 있다. 이는 기능적패션의 단적인 예로 보고 싶다”, 조선일보 '00.1.20일자 기사.

35) 조 경희, Stretch Aesthetics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복식 46호, 1999, 8.

36) ibid, p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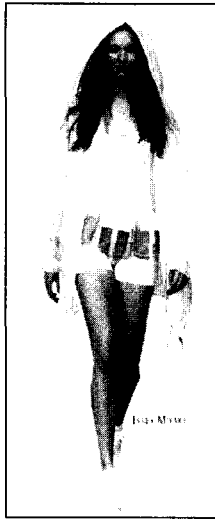


그림 4. Yssey Miyake
의 스포츠 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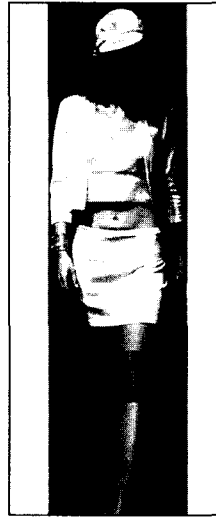


그림 5. Antonio Berardi
의 스포츠 룩



그림 6. Jeremy Scott
의 스포츠 룩



그림 7. Helmut Long의
신체의식과 스포츠
컨셉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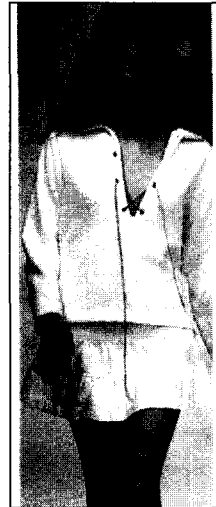


그림 8. Sportmax
의 스포츠 룩



그림 9. Antonio D'Amico
의 스포츠 룩

V. 結論

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sports fashion이 대중스타들에 의해 자유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프랑스가 fashion의 중심지로서 haute couture fashion의 장식적이고 과시적인 유행의 주도가 축적된 기술의 바탕으로 prêt-à-porter로 옮겨가면서 American casual style이 fashion계를 주도하게 되었다. 최근의 fashion trend는 fun, comfort, easy, pleasure 등으로 표현되어 자유롭고 보편적인 시도가 미래적 테마로 등장한다.

우리나라의 sports fashion image를 보기위해 예술의 시각적 상황이 드러내는 복재의 시각과 하이퍼 미디어 시대를 배경으로 살펴보았다. 복제기술이 진품과 사이즈의 감각을 퇴색시키고 신체표현의 image가 하이퍼 미디어 시대에 파편화되거나 물신화되어, 신체의 인식은 재발견되게 되었다. 이것이 현대 유행에서 강조되는 신체 의식(body concious)이다. 이는 기능성 섬유인 스트레치 직물로 표현된 패션에서 미래적 image를 보여주게 되는데 가장 기적의 fashion인 sports fashion에서 신체자체를 위한 Technology와 연결된다. 정신적 우위의 인간을 위한 신체에서 새로운 인식대상으로서의 신체를 위한 Technology, 이는 한국의 sports fashion image에서도 보여지지만 나아가 comfort, function, flexibility, uniformity, healthness, modern purity, modern femininity, simplicity and minimalism을 추구하는 미의 현대적 개념을 가시화 하는 구체적 image로서의 sports fashion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초기의 sports wear는 단지 기능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90년 이후 easy casual, hip-hop casual, jean casual, entertainment casual sports wear, new street sports wear, luxury sports wear로 다양화되는 추세를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 이주현, 미술로 보는 20세기, 학고재, 1999.
- 이동승, 하이퍼 미디어 시대와 시각예술의 상황, 미학·예술학 연구.
- 정재희, 20세기 스포츠 웨어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1991.
- 로 워커/장 선영 옮김, 에스미디어와 예술, 시각과 언어, 1998.
- 존 버거/이 등준, way of seeing, 동문선, 1996.
- 정미혜, '98-00' fashion trend에 나타난 hybrid 현상에 관한 고찰, 한국의상 디자인 학회지, Vol.1, 1999.
- 김인숙, 김경옥, 현대패션에 표현된 키치 연구, 복식 47호, 1999, 9.
- 최정화, 유영선, 현대패션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복식 40호, 1998, 9.
- 이은영, 이종련, 홍운택, 우리나라 cyber fashion에 대한 연구, 배재대학교 자연 과학논문집 11/1, 1998, 12.
- 이은영, 확장문화개념에서의 90년대 유행패션의 경향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5/4, 1997.
- 이은영, 현대예술과 패션의 트렌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3, 1998.
- 이효진, 20세기말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신표현주의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 40호, 1998, 9.
- 엄광현, 소비문화현상으로서의 상품미학, 미학·예술학연구회, 1994, 3·4.
- 패션마케팅, 1999, 4.
- Texjournal, 1999, 5.
- Texjournal, 1999, 4.
- Texjournal, 1999, 6.
- Texjournal, 1997, 10.
- Texjournal, 1999, 7.
- 이영철, 백한울, 21세기 문화미리보기
- 조경희, stretch athletics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복식 46호, 1999, 8.
- Textile times, 1999, 1.

Abstrct

A Study of Sports Fashion Image in Korea

Lee, Eun-Young*

*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aichai Univ.,
Professor

Korean sports fashion began after 1990.
after 1960, using vinyl, leather, plastic & metal material, Yve st. Laurent, Pierre Cardin, Andre Courrges, they lead sportive look. Head of 20th century, fashion was lead by haute-couture, after 60s. It was changed to prêt-à poter. Now it can be called of american casual & sports fashion.

This study would be a view of modern fashion trend and process of visualization in the future. I studied in reproduction of view & age of hyper media with visual circumstance & artistic background and mordern fashion trend & sports fashion image in korea.

In conclusion, sports fashion image as visualizing aesthetic concept of modern fashion be defined as technology for man, for instance comfort, function, flexibility, simplicity and minimalism.

Specically, Sports fashion was began satisfied for function after 90s, we can see variety of easy wear, hip-hop casual, entertainment sports wear, new street sports wear, luxury sports wear.